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6월 12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FLANAGAN 상원의장 및 HEASTIE 하원의장, 유방암 검사 이용 및 보험 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새 법안에 대한 합의 발표

이 이니셔티브는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유방암 검사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주지사의 계획을 토대로 합니다

합의 내용은 병원 및 의원에서 검사 시간을 확대하고; 보험 장애물을 제거하며 모든 공무원에게 검사를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상원의장 John Flanagan 및 하원의장 Carl Heastie는 오늘 2016 주 시정 연설에서 설명된 주지사의 일련의 유방암 이니셔티브에 의거한 유방암 검사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지사 하에서 뉴욕주는 유방암 검사 이용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모두 그 계획을 토대로 하며 주 전역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받을 권리가 있는 보건 의료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합의는 주 전역의 210개 병원급 유방 촬영 시설에서의 검사를 위한 시간을 연장하고 유방 촬영 및 기타 유방암을 탐지하기 위한 검사 및 진단 촬영 기술을 위한 보험 허들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을 포함합니다.

“조기 탐지는 유방암 퇴치의 열쇠인데 뉴욕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격적인 암 검사 작전의 본고장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Sandy가 유방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조기에 잡은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어서 많은 여성들이 이 병과 정식으로 싸우기에 충분할 만큼 자신의 스케줄 또는 자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검사 시간을 확대하고 보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이 합의는 우리의 부인, 딸과 여형제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보건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도 이 병을 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Flanagan 상원의장과 Heastie 하원의장의 파트너십에 감사하며 모든 여성들이 검사 받기를 강력히 장려합니다. 암이라면 조기 발견이 평생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원의장 John Flana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여성들에게 길고 건강한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는 주정부 공약을 재확인하는 3자 합의에 도달하여 기쁩니다. 그것은 뉴욕주 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받을 권리가 있는 검사를 받도록

장려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인은 이 이슈에 빛을 비추신 **Cuomo** 지사와 유방암과의 싸움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신 양 당의 우리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조기 발견이 여전히 유방암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인정하며 본인은 뉴욕주민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을 이루어 자랑스럽습니다.”

하원의장 Carl Heasti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방암은 매우 많은 여성들, 즉 우리의 아내, 모친, 딸, 자매와 친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합의는 인식을 증대하고 여성들이 생명을 구하는 조기 탐지를 위해 필요한 부담 없는 유방암 검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충격을 제한하려는 우리의 다짐을 대변합니다. 이동식 유방 촬영 밴의 추가는 다른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커뮤니티에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방암과의 싸움을 강화할 것입니다. 본 합의를 통해 뉴욕주는 진보의 리더 겸 하원 여당의 오랜 최우선 순위 사명인 여성의 건강 및 안녕을 진흥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법안은 대중 인식 캠페인, 커뮤니티 계몽 프로그램, 환자 네비게이터 및 이동식 유방 촬영 밴을 포함한 유방암 인식 및 검진을 증대하기 위한 주지사의 시정 연설에 설명된 **9100만 달러** 투자를 토대로 합니다. 새 법안 합의의 내용:

- 평일의 일반적인 오전 9시~오후 5시에 유방 촬영 스케줄을 잡기가 곤란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210개 병원 및 의원이 검진 시간을 주당 적어도 4시간 연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간에는 월요일~금요일의 오전 7시~오전 9시와 오후 5시~오후 7시 그리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의 오전 9시~오후 5시가 포함됩니다;
- 40대 여성 대상 연례 유방 촬영 같은 현재의 연방 선별검사 가이드라인보다 더 자주 여성에게 제공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선별 유방 촬영에 대한 년 공제, 공동 부담 및 공동 보험 결제(“비용 분담”) 철폐;
- 유방암 위험이 높은 여성 대상의 진단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및 유방 MRI를 포함한 유방암 진단 촬영의 비용 분담 철폐. 따라서 표준 유방 촬영 이외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이러한 가장 일반적 진단 검사를 위한 추가 경비를 본인의 자비로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유방암 검진을 위해 매년 4시간의 휴가가 현재 허용되는 뉴욕주 공무원 집단에 100만 이상 인구의 시 공무원들을 추가. 현재의 주 법률은 모든 공공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유방암 검진을 위해 년 4시간의 휴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뉴욕시 공무원들도 전주의 다른 모든 공무원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가 유방암 검사 진흥의 선두에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라고 **NYS 보건부장관 Howard Zucker 박사가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이니셔티브는 조기 발견 기회를 늘려서 더욱 조기의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새 법안은 주 전역에 있는 여성들의 건강과 삶에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은 여성들의 생명을 구합니다”라고 **금융서비스부장 대행 Maria T. Vullo가 말했습니다.** “필수적 검사 및 진단 촬영의 재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 법안은 여성들과 가족을 도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치료할 기회를 개선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전역의 여성들을 위해 이 중요하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유방암은 가장 흔히 진단되는 암일 뿐만 아니라 뉴욕주에 거주하는 여성들 중 암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매년 약 **15,000명**의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진단되며, 약 **2,640명**의 여성들이 이 병으로 사망합니다.

유방 촬영을 포함하는 유방암 검진은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조기에 이 병을 탐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뉴욕주에서는 **50-74세** 여성들의 약 **22%**가 최소 **2년**에 한 번씩 유방조영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해 선임된 전문가 패널인 커뮤니티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는 편리한 병원 시간의 결여 같은 구조적 장애물이 여성들의 검진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무와 가사 의무로 인해 여성들은 평일의 일반적인 오전 **9시~오후 5시**에 유방 촬영 스케줄을 잡기가 곤란합니다. 기타 검진 장애물로는 교통편, 검진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유방 촬영이 고통스럽다는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미국암협회 암행동 네트워크의 정부 관계 담당 국장 Julie Har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유방 촬영 서비스를 위한 시간을 연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여성들의 유방암 검진 이용을 개선하려는 **Cuomo** 지사의 대담한 조치는 뉴욕주를 위해 올바른 수입입니다. 조기 탐지 서비스 이용 개선은 더 많은 암이 더욱 일찍, 더욱 치료 가능한 단계에 발견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Susan G. Komen Greater New York City의 Shakiba Muhammad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방암 검진의 접근성 및 보험 보장을 늘릴 이 중요한 법안을 제정하신 **Cuomo** 지사, **Flanagan** 상원의장 및 **Heastie** 하원의장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기 발견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함을 알기 때문에 뉴욕주의 매우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이 공격적 계획에 대해 우리 주 리더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암검진교육 프로그램 자문협의회 의장인 Maureen Killackey 의학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 환자 중심 조치입니다. 양질의 스크리닝 서비스를 위한 검진 시간 연장 및 확대와 재정 장애물 제거는 뉴욕주 여성들이 조기에 유방암 검진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Cuomo** 지사와 주 의회는 더 많은 유방암 사례가 더 조기에 탐지되어 더 많은 여성들이 필요한 치료를 더 속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 의회가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Roswell Park 암연구원 원장 겸 CEO인 Candace S. Johnso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새 법률은 여성 건강을 위한 게임체인저로서 여성들이 전향적으로 조기

발견, 성공적 치료 및 훌륭한 삶의 질을 위한 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 중요한 이슈에서 단결하여 너무 많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스크리닝 및 보험 보장의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어서 Roswell Park는 고무됩니다.”

근무 시간 또는 기타 일과 책임으로 암 검진을 받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주 직원들은 현재 유방암 검진을 위해 년 4시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이 유방암 검진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는 모든 민간 부문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같은 타입의 혜택을 부여하여 년 4시간의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5개 기업이 주정부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연락처 정보를 [여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